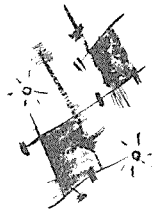


소아 건강검사는 영아기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간염의 발생률이 특히 높은 나라이며 신생아 시기에 걸린 간염은 성인이 된 후 간경화증으로 발전 된다고 하며, 나아가 간암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생 즉시 간염 백신을 접종하여 이후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여 면역기능이 생겼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조 한 익

사회복지제도가 이땅에 점차로 뿌리박히고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 우리의 생활 양식 또한 옛날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

요즈음 한 가정에 자녀 하나 내지 둘만 갖기로 하는 운동도 그 중의 하나이고 그럼으로써 그 자녀들이 보다 더 이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건강, 영양, 신체 및 정신 두뇌발달 등에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아기의 건강은 앞으로 그 인간이 성장

하여 이루는 신체 조건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시기의 건강보다도 중요하다 하고 하겠다.

그러므로 영아기의 질병을 빨리 탐지하고 치료를 하여 앞으로의 삶이 무리없이 잘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다행스럽게도 컴퓨터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의학계에도 다수의 검사는 컴퓨터 기계에 의해 편리하고 정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예로써, 혈압, 혈중 Hemoglobin 농도, Hematocrit치와 같은 혈액학적 검사 외에도 소변검사, 대변검사 뿐만 아니라 간염백신 접종후 항체 형성 여부 및

그 역가측정등 편리하고도 꼭 필요한 검사
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기적인 진단 외에도
영아기에 꼭 필요한 검사들이 있다. 우선,
유전성질환을 예로 들면 혈우병, 색
맹, Glucose-6-phosphate ehydrogenase 결핍증,
뇨붕증등 수없이 많으며 유전자이상으로
인한 질병으로서 Down 증후군, 18trisomy,
13trisomy, Turner 증후군, Klinefelter
증후군 등이 있다. 이들중 많은 질병에서
일찍 탐지하고 적절히 치료할 경우 증상
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늦게 발견
될 경우 적절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질환중에 내분비
대사 질환도 있다. 그중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일찍 치료를 시작할 수
록 지능에 대한 예후가 좋으며, 선천
성부신증생(Congenital Adrenal Hyperplasia,
Adrenog-

enital Syndrome)은 유전성질환이기도
한 것으로 역시 일찍 치료를 시작해야
Sequele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 외
에도 부신피질기능부전(Adrenogenital
Insufficiency), 당뇨병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다음 면역결핍증에 대한 검사로서
혈중 IgG, IgM, IgA, IgE 및 혈청 Ca^{++}
농도, 보체, B cell 및 T cell Marker
study, 여러 Antigen에 대한 항체 생산
장애 여부등이 있는데, 이들 역시 대부
분이 일찍 진단하여 일찍 치료를 시작하
면 할수록 나중의 후유증이 적어진다
는 것으로 중요하다. 아미노산 대사이
상으로서 페닐케톤뇨증(Phenylketonuria),
백자(Albinism), Alkaptone뇨증, 풍당
뇨증(Maple Syrup Urine Disease) H-
istidine혈증(Histidinemia)등이 대표적
인 예이고 Purine 및 Pyrimidine 대사



컴퓨터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의학계에서도 다수의 검사는 컴퓨터 기계에 의해 편리하고 정확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으로서 Lesch-Nyhan Syndrome, Xanthinuria, Adenosine desaminase deficiency 등이 있으며, 당질대사 이상으로서 Galactosemia, Galactokinase deficiency 등이 있고 당원병 (Glycogen Storage Disease)로서 type I-XII 까지 발견되었고 그 외에도 Mucopolysaccharidosis, Lipidosis, 지질대이상증 등이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의 질환의 발생 빈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구미와 일본등지에서는 이미 보험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신생아의 mass screening이 일반화 되어 그 발생 빈도가 밝혀졌는데 일본에서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은 1/8,000, Phenylketonuria는 1/10,000이고 미국은 각각 1/5,000, 1/13,773으로 되어 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Phenylketonuria, Histidinemia, 풍당뇨증, Galactosemia등 대사 이상 질환의 mass screening은 현재 영아의 발꿈치를 puncture 하여 blood spot test등으로 큰 어려움없이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등이 널리 소개되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filter paper blood spot를 RIA로 측정하여 아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며, 대사이상증에 의한 아미노산 장애나 Galactosemia 등은 역시 filter paper blood spot를 사용한 Guthrie 방법이나 Bentler 방법, 또는 Paigen 방법을 사용한다.

요약하건데 영아기에 있어서 질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상당수가 치료효과 및 예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때문에 영아기의 건강검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구미

6
**영아기의
 건강은 앞으로
 그 인간이 성장하여
 이루는 신체조건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어느
 시기의 건강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여러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간염의 발생율이 특히 높은 나라이며 신생아 시기에 걸린 간염은 성인이 된 후 간경화증으로 발전된다고 하며, 나아가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생즉시 간염 백신을 접종하여 이후 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하여 면역기능이 생겼는지를 아는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전성 혹은 대사이상에 의한 질환은 genetic counselling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선천성 부신증생, Phenylketonuria, 풍당뇨증, Galactosemia, Homocystidinuria에 대한 mass screening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험수가등이 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필자=서울의대임상병리과 조교수)

